

발행처: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임기선 요셉
주소: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02 8756 3333

시드니가톨릭신문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정영수 요한

VOL. 108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요한 14,20 참조)

2014년 6월 1일 (월간)

시련과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서서히 잊혀가는 세월호 참사, 그러나 지금이 바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어이없는 비극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희생자의 아픔과 시련이 헛되지 않도록 그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무엇이든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유족들을 기억하며 본당에서 있었던 세월호 희생자 추모미사의 강론을 싣는다. (편집국)

+ 오소서, 성령님!

우리는 지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사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희생자들을 향한 애뜻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한국이건 여기 서건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한데 모아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 대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열사흘째입니다. 아직도 실종자 수는 100명이 넘고 구조자 수는 174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 기적에 대한 희망마저도 요즘은 마치 고문처럼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욱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참사의 희생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 보다는 어떻게든 책임을 피해보려는 사람들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이들, 그러는 와중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많은 국민들까지... 너무나 잔인한 현실입니다.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종자들의 무사기원을 담은 의미의 노란 리본 달기가 SNS에서 들 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북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많은 지인들로부터 이 소식을 접

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만큼 그렇게라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터넷상에서나마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이제는 그 노란 리본이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 어느 신부님이 썼다더라 하면서 - 그러면서도 그 신부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는 - 그런 글이 교우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 리본을 내려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엔 저도 적잖게 혼란스러웠지만 잠시 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인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잠깐만 검색해도 노란 리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찾아보고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식이 있다 하면 그것을 그저 퍼 나르기 바빴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것만 듣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희생자들



을 위한 추모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분명 우리가 여기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한다고 해서 희생자가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이웃에게 닥쳐온 시련과 아픔을 남의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돌볼 수 없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하느님께서 자재로이 보살펴주시기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빈 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하느님의 도구로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슬퍼하며 실의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악이 교묘히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면서도, 슬픔에 지친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확실한 근원지도 없는 소문에 이리 저리 휘둘리지 말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에 모여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혜신 박사는 사흘째 진도에 머물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동안 감히 그들에게 위로하겠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확인 중에 엄마들은 거의 실신합니다. 아빠들은 쓰러지는 아내 돌보느라 제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아빠라고 슬프지 않을까요. 아빠라고 쓰러질 것 같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아빠’가 되어 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아빠가 되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자신도 몹시 아프지만, 너무나 괴롭지만 그럼에도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수백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게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세상을 향해, 더욱 깊은 곳으로 지속적으로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상현 스테파노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변화

역사를 통해보면 교회는 많은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격변하는 오늘날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보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볼 필요가 있고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만남의 문화에 봉사하는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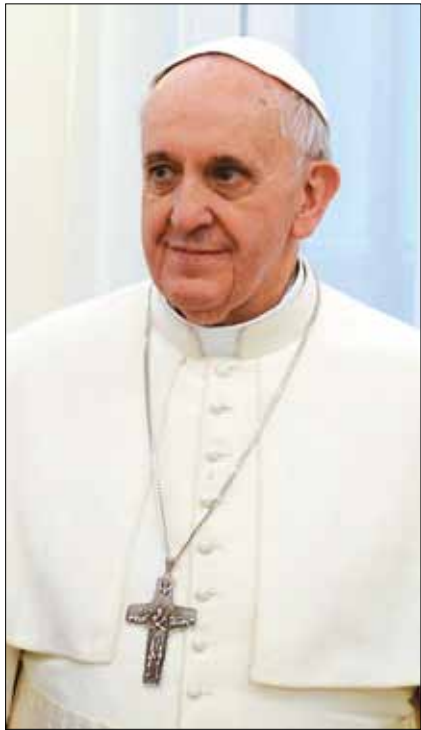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48차 홍보 주일 담화요약 (2014년 6월 1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점점 ‘더 작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서로 이웃이 되기가 쉬워 보이며, 세계화는 우리를 서로 의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인류 가족 안에는 분열이 존재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부자들의 지나친 사치와 가난한 이들의 극심한 빈곤 사이의 격차는 치욕적일 만큼 큼니다.

이런 세상에서 대중 매체는 우리가 서로 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해 주고, 인류 가족의 새로운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 매체, 특히 인터넷은 모든 사람에게 만남과 연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으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세상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와 정반대로 우리가 길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려는 바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참된 만남의 문화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만든 새로운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9)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느낌과 침착함의 감각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침묵하고 귀 담아 듣는 시간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그쳐 참아줄 때가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때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이들은 서로 이웃이 되며,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곧 하느님의 자녀임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사소통의 힘을 ‘이웃되기’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대로’를 지나가는 것, 곧 단순히 ‘접속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접속은 참된 만남을 수반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로는 그 거리 가운데 하나로, 흔히 상처받고 구원이나 희망을 찾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메시지는 “땅끝에 이르기까지”(사도 1, 8) 전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교회 전체의 선교 소명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우리는 따스함을 전하고 마음에 불을 놓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이 상처받고 길가에 버려진 이들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말고 디지털 세상의 시민이 됩시다. 교회는 커뮤니케이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현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모회 야유회

오월, 성모 성월의 첫 주말, Woronora Dam 으로 50 여명의 성모회 회원들이 야유회를 다녀왔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는 차가운 가을비로 내심 걱정도 되었으나 야유회 장소에 먼저 도착한 임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천막을 미리 쳐 놓아 오히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모처럼의 나들이를 맞아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온 듯 들뜨고 즐거운 분위기의 회원들은 간간히 그치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비속에서도 도란도란 우산 속의 산책을 즐기고 각종 게임과 보물찾기, 포크댄스 율놀이 등으로 행복한 오후 한 때를 보냈다.

성모회장 김명희 베로니카 자매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오월에 갖는 회원들의 나들이는 주일 한끼의 식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중에 두세 번을 나와야 하는 등 공동체 안에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이 봉사하



는 성모 회원들을 품어주시는 성모님의 선물이라고 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생활이지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하여 성모회에서 활동해 주실 더 많은 자매들을 기다린다고 말하였다.

가입문의 (김명희 베로니카 0427 188 895)

[성모의 밤]

맑은 하늘 오월은 성모님의 달.
촛불 들고 모여와서 찬미 드리세!



성모 성월, 5월 2일 저녁,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의 전례인 2014년 ‘성모의 밤’ 예식이 있었다. 주임사제가 성스럽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제대 위에 모신 성모님 머리 위에 장미꽃 화관을 올려드리는데 예식과 함께 전 교우 촛불 점화, 성모님께 환호하며 드리는 묵주기도, 제단에 한 사람씩 자신의 초를 봉헌하는

시간, 성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치는 기도문 낭송, 플루트, 바이올린, 클라리넷으로 성가를 연주한 세 명의 천사와 같은 어린이 연주자, 헌화회, 레지오마리아, 성가대, 방송실, 전례부 등 모든 교우가 한 몸이 되어 화합의 하모니로 성모님을 찬미 하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	-----------------------------

이명순 데레사

영양돌솥전문점
**북창동
순두부**



9868 4300 박만원 (토마스)
10/74 RAWSON ST, EPPING

**글로리 병원**
Glory Medical Centre

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 MBBS(Syd), FRACGP
원장 **이육배 / Dr U.B. Lee**
Mon - Fri 9am - 6pm / Sat 9am - 1pm
18 Bridge St, Lidcombe
T.9649 3333 F.9649 3366

Oh-My

오-마이 김밥
파티, 결혼 및 장례 음식

el 9718 1118 / Mob 0416 209 750
594 Canterbury Rd. Belmore

**i see
OPTICAL**

정밀한 시력검사
최상의 고객만족
각종개인보험 즉석처리

녹내장, 망막 황반변성, 백내장, 시야검사
당뇨 환자의 눈검사, 어린이 시력진단
렌즈수술 전문의 권의서

한국인검안사 6명 근무
T 9858 3886 116 Rowe St Eastwood 2122
(미라식당옆)

삼성한의원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원장: **강 성후**(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진료안내
및 예약 9746 3537**

▶ Strathfield 본원 -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 Lidcombe 분원 - 1-3 Mary St Lidcombe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대호여행사
EASTWOOD

김기남 마리아나 이스트우드 9874 3311
Mobile 0414 433 611

대한항공 판매 대리점, 아시아나 특가발권
전세계 항공 예약 및 호텔 판매

‘몸이 건강해야 영적 생활도 성숙!’ 레지오 야외행사 성황

본당 레지오 단원의 성모님께 대한 충성과 단원간 친목을 다지는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지난달에는 성모님께 충성을 다지는 아치에스 행사를 한데 이어 지난 5월 16일 주일에는 순교자 모후 꼬미시움과 3개 구리아 44개 브레시디움의 단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레지오 야외행사가 열렸다

3개 구리아 중 사랑의 모후(단장 최종문 아우구스티노)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브레시디움별로 오찬을 나눈 후 성당 공원에서 체육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임기선 요셉 신부님은 “영적 생활을 더 충실히 하려면 육체가 건강해야 한다”며 “일상 생활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의 백미는 구리아 대항 줄다리기 행사였다. 사랑의 모후가 우승했고 임기선 주

임 신부님까지 가세한 평화의 모후는 복된 성체모후 구리아와 접전 끝에 아깝게도 3등을 했다. 순교자 모후 꼬미시움과 3개 구리아 44개 브레시디움의 단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본당에는 1개 꼬미시움에 3개 구리아를 두고 있으며 레지오 단원 수가 3백70명이다. 올해 행사를 주관한 사랑의 모후 구리아의 최종문 아우구스티노 단장은 “많은 단원들이 화창한 날씨 속에 친교의 시간을 가지게 돼 기쁘다”며 “레지오 단원들의 결속을 통해 본당의 일치와 화합에 기동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지오는 소속 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아 단원과 단원사이의 친교를 기르도록 하는 *아치에스 행사 *연차 종친목회 *야외 행사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년 체육대회

5월 4일 본당 청년연합회(회장: 박유현 마르티노) 주최의 청년운동회가 있던 날, 간밤에 추적추적 오던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화사한 아침햇살이 청년들을 맞아주었다.

본당의 청년 운동회는 주로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만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다른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알아 가는 기회를 주는 뜻 깊은 행사이다.

올해는 본당의 모든 청년단체와 시티공동체에서 함께 하여 교사회, 성가대, Black Angel, YIC 4개의 팀으로 나뉘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오전과 오후 파트로 나뉘어 오전에는 축구, 피구, 미션달리기, 줄넘기 시합을 하였고, 점심시간 후 오후에는 줄다리기, Gates of Hell, 축구결승, 계주, 박 터트리기 게임 등을 하였다. 청년들의 왕성한 열기와 팀웍으로 종합 우승을 놓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이 있었는데 교사회



팀이 끈질긴 집중력을 발휘하여 최종 4점을 획득해 올해 운동회의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늦가을 날씨에도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우승에 관계없이 끝까지 즐겁게 뛰어 놀며 땀마무리까지 말끔하게 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였다.



사막에서 일어난 일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모두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막을 무사히 건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사막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막이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사막 끝에 서 계신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느님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사히 사막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여! 우리 세상 사는 일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시와 그림: 김요한)



아내는 자매님들, 바람에 날리는 과자봉지를 주워 내는 손길, 성모동산 정원 석에 예쁜 꽃 화분을 올려놓는 어르신, 순교자 기념관 바닥과 성당마당에 겹게 늘어 붙은 껌을 열심히 긁어내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형제님, 식사 후 어지럽혀진 탁자를 닦아내는 손길과 싱크대에 수북이 쌓여진 컵을 기꺼이 씻어 소독기에 넣어놓는 손길들이 있었다. 한편 부활과 성탄을 맞이하여 지구 협회의 12지구장들과 구역장들이 출산하여 성당 주변을 대청소 하는가 하면 지난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서는 사랑의 모후 구리아 소속 평화의 사도 브레시디움 단원 5명이 크리닝 장비까지 구해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리교실로 쓰고 있는 교육관(스타니슬라오관)의 교실 카펫을 구석구석까지 청소하였다.

이렇듯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렁이 각시처럼 봉사하는 교우들이 있기에 우리 본당은 365일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고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면모를 지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묵은 일에도 묵묵히 봉사하는 이분들이야말로 생각이나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노력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현실로 드러내는 분들이었다. - 편집국 -



“우렁이 각시 교우들”

본당이 늘 청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매 주 일 이전 여명의 신자들이 시드니 각지에서 모여왔다가 제각각 돌아가고 난 뒤 누군가의 뒷정리와 청소가 필요하고, 또한 평일에도 하루에 두 대씩의 미사가 있고 크고 작은 회합들이 있기에 일주일 내내 보살핌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일은 대체 누가 하는 것일까? 관심 있게 살펴보니, 미사가 끝나자 돌아가기 바쁜 교우들 사이에서 어느새 바쁨을 어깨에 매고 청소를 하는 형제님들, 손자국으로 얼룩진 유리창을 이쪽 저쪽 비쳐가며 닦

“사랑을 드리고 신령받는 병원” 성모치과의 약속입니다.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AECO DENTURE CLINIC

에코 틀니 전문 클리닉

Dental Prosthetist 이상현 안토니오

“정성을 다해 틀니를 제작해 드립니다.”

전체/부분 틀니
부서지거나 손상 된 틀니 수정/교정
헐겁거나 맞지 않는 틀니 수정/교정

예약 전화 9874 1099, 0407 380 390
주소 1/19 Rowe Street Eastwood

호주 청정우·화환 한국택배 전문업체

동서유통(벨모아)

원하시는 부위를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전지역
꽃배달

경 조사용 꽃 배달 서비스 실시!!!

동서 유통 이수봉 다니엘 **070 7884 7560**

(동서 정육점 직영)
351A BURWOOD RD.
BELMORE 2192
T. 9750-2694
M. 0425 213 503

NEWBORN

BUILDING & CARPENTRY

신축, 증축, 실내 인테리어, 샤피팅
파골라, 데크, 마루 시공, 화장실 레노베이션, 페인팅
간단한 핸드맨일 문의도 환영

ABN : 35 189 753 315 / LICENCE NO : 2579988C

M 0430 379 269 M 0421 073 706

General Carpentry / Maintenance / Repair / Basement / Shop Fitting
Remodeling / Owner Builder Assistance & Renovation
Patio & deck / Bathroom / Kitchen



2014년 경로잔치

“어버이, 우리는 사랑이라 부른다”

5월 10일, 본당의 올해 경로잔치에는 신자들의 적극적인 도네이션과 참여, 성당 12개 지구에서 마련한 푸짐한 음식으로 예년에 볼 수 없는 풍성한 축제 한마당이 됐다. 1만8천불에 이르는 기부금을 비롯 물품 도네이션이 이어져 나눔과 사랑의 노인잔치가 된 것이다. 약 7백여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석 하셨으며 이휘진 총영사, 송석준 한인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임기선 요셉 주임신부님은 이날 미사 강

론을 통해 “신앙의 삶을 통해 보다 더 즐겁고 보람찬 노후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10만 한인동포사회를 일군 동포 1세대들의 공을 후세들이 잇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사 후 진행된 순교자 기념관에서의 2부 순서에서 주임 신부님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기도예 이어 이휘진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교훈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동포들이 보여준 희생자에 대한 위로와 성금도 금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오전 11시30분부터 12지구와 사목회의 봉사자들이 지구별로 밤새 마련한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자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음식과 맥주를 들며 정담을 나누었다. 낮 12시부터 시작된 여흥 프로그램에서는 흥에 겨운 나머지 무대 앞으로 나와 덩실덩

실 춤추시기도 하였고 은빛 성경학교 노인들의 라인댄스와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상투스 성가대의 합창이 인기를 끌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기증된 라플 티켓의 상품도 푸짐했다. 삼성 LED TV를 비롯 온수 매트, 모바일 폰, 건강식품 종합 선물 세트 등이 노인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전달돼 어르신들의 함박 웃음이 기념관을 떠나지 않았다.



Healthier choice for Healthier Living
신선 자연건강식품
HealthPlus 
MEKEN
버우드 본점 Tel: 02 9744 7000 / 226 Burwood Rd, Burwood NSW 2134
시티 전시장 Tel: 02 9264 5200 / Shop 10, 324 Pitt St, Sydney NSW 2000

 **제일종합금융**
출론 · 비즈니스론 · 상업융자 · 건설융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에핑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스/트/우드
하나식품
모든 식료품, 신선한 과일과 야채, 친절할 서비스
- 박정철 요한 -
Tel: 9874 1581 27 Railway Pde, Eastwood

차량용 블랙박스 & 자동차 악세사리
스마트 아이에서 해결하세요
전화 : 02 8041 2110 or 0488 36 88 22
 Shop 16, 16-20 Henley Rd Homebush West 2140 (플래밍턴 역에서 3분)



하느님의 종 “오종례 야고보(1821-1840년)”

충청도 은진의 양반 출신으로 '일성록'에 신앙을 갖게 된 단서가 될 중요한 기록이 있다. “오종례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학에 깊이 빠졌다. 장성하여서는 가족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으며, 이웃에게도 전교했다.” 이로 보면 집안에서 신앙을 전수 받은 것이 아니고, 양반 자제이니 글을 배우면서 책으로 접하였거나 혹 전교를 통해 천주님을 알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힌 천주학에 빠졌으니 예수님이 직접 스승이 되어 이끄신 것이라. 어린 오종례가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과 지혜와 몸이 날로 자라는 모습을 목상하니, 불이 붉고 눈이 반짝이며 잘 생긴 소년 다윗이 연상된다.

성실하고 씩씩하며, 예의범절 바르고, 어른 말씀 잘 듣고, 벗과도 신의를 지키고, 양반 자제라고 뽐내지 않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대장부 오종례는 집안은

물론이고 동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청년 오종례는 천주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으니 가족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들고 굶은 일을 도맡아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행실천에 솔선수범(率先垂範) 하는 청년 오종례, 과년한 여식이 있는 집은 누구나 사위로 삼고 싶을 만큼 듬직한 청년, 나라에서 급하는 사학을 믿는 것이 좀 흠이지만, 저렇게 반듯한 청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아리따운 마음씨 고운 아가씨와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고 전라도 고산에서 살게 되니 무엇 하나 부러운 것이 없는 행복한 나날이었다.

행복을 시샘하는 사탄이 기승을 부리던 1839년 7월 어느날, 진산에 사는 형을 찾아가다가 형과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전주 진영에 끌려가 문초를 받는데 영장(현감)이 젊은 그를 보고 “아직 젊은 나이니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만 하면 놓아주겠다.”며 배교를 강요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예수님 따라 장성한 오종례가 쉽게 굴복할 리 만무하다. “천주님을 섬기는 행복을 알고 있는데 어찌 형벌이 두려워 천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신앙고백은 넓은 감영 마당에 메아리 쳐 다시 혹독한 고문으로 돌아온다. 나날이 가혹해지는 고문 속에서 형은 배교하고 감옥 문을 나서는데 오종례의 마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며, 오히려 감옥에 있는 교우들을 권면했다. 수개월 옥고에 시달리다 보니 수려한 얼굴과 건장한 몸은 일그러졌지만 순교를 열망하는 바위 같은 믿음은 형형한 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젊은 그의 마음에 오간 상념(想念)들은 무엇이였을까? 지금도 사립문에 기대어

서 기다리는 꽃같이 어여쁜 아내, 눈에 삼삼히 밝히는 황금 물결치는 논과 밭, 입신양명(立身揚名)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잠시 다녀 온다는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눈 감으면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행복도, 기쁨도, 고통도, 사랑도, 예수님과 하나 된 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1840년 1월4일(양력) 전주형장에서 19세의 피 끓는 청년 오종례는 순교의 월계관을 쓰고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였다.



하느님의 종 “이순이 루갈다(1782-1802년)”

한국 천주교회의 백합으로 칭송 받는 하느님의 종 이순이 루갈다는 왕족으로 신유박해의 순교자 이윤하의 따님이며, 같은 순교자 유항검의 며느리이다. 그리고 양가(兩家)에서 일곱 분이 시복 예정이다.

한국의 몽마르트르 불리는 전주 치명자산, 호남의 사도 유항검 일가(一家) 순교자 7위의 고결한 신앙이 살아 숨쉬는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성지이다. 그 중에 유항검과 며느리 이순이, 두 아들 유중철, 유문석과 조카 유중성 등 순교자 다섯분이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었으니, 한 집안에서 5위의 복자가 탄생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루갈다의 꽃다운 행적을 적어본다.

그녀는 순교자인 아버지 이윤하와 천주교회 창립에 공헌한 권철신, 권일신의 누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가문에 흐르는 천주학의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1795년 주부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주님을 모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다. 그리고 14세의 어린 소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정배자(定配者)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 즉 동정의 삶을 결심한다. 그러나 당시의 양반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인의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주부모 신부의 주선으로 역시 동정의 삶을 소망하던 교우 유중철과 혼사가 이루어졌다.

가 이루어졌다.

주신부는 동정의 삶을 원하는 두 사람의 고결한 결심을 듣고 이들을 부부로 맺어주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가장 감격스러운 이야기”라는 한국천주교회사의 저자 사를르 달레 신부의 극찬이 오히려 부족한, 하느님의 종 이순이 루갈다와 유중철 요한(1779~1801년) 동정부부 이다. 이들은 유혹을 받아 동정서약(童貞誓約)을 깰 뻔할 적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피 흘린 사랑에 의지하여 유혹을 이겨냈다고 술회했다. 마음이 두렵기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깊은 물가에서 있는 듯, 그때마다 십자가를 쥐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였으면, 루갈다의 묘소에서 발굴 된 철제(鐵製) 십자가가 뭉그러졌을까? 뭉그러진 십자가 속에는 동정부부의 끓는 피, 유혹, 기도, 눈물, 한숨이 녹아있다. 유혹의 산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신망에 삼덕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더욱 견고해지고 백합의 향기는 더욱 그윽하게 깊어졌다.

1801년 신유박해의 광풍은 호남의 사도 집안을 풍비박산 낸다. 루갈다의 시아버지 유항검이 호남지방 사학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남편 유중철과 함께 처형되었고, 그 일족이 다수 옥에 갇혀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때에 루갈다는 뛰어난 문장으로 혈육지정(血肉之情)의 애절함과 신앙적 소회

를 상세하게 기록한 여러 통의 편지를 옥 밖으로 보냈다. “서러운 일도 많고 많아 글로 쓰려면 소나무와 대나무가 말라버릴 정도”라고 표현한 처참함 속에서 옥사장(형리)의 눈을 피해 틈틈이 쓴 글이 바로 “옥중 서한 루갈다 일기”이다. 피로 쓴 그 사랑의 편지는 필사 되어, 선대 교우들의 신앙 생활에 근간이 되었다. 오빠와 남편과 더불어 앞서거나 뒤서거나 목이 베어져 순교한 후, 교인들은 그 옥중서한을 돌려가며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 글은 일찍이 대했던 어떤 문장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교계에서 루갈다의 이름은 이미 성인 반열에 놓인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 오라버니 이경도 가롤로와 동생 이경언 바오로도 이번에 복자에 오른다. “열렬한 사랑만큼 천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천지간 어디를 돌아봐도 내 마음을 사로잡을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다.” “제 머리에 생각 하나 떠오르면 그것은 천주를 향한 것이고, 제 가슴 숨 한번 쉬면 그것은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옥중 서한 루갈다 일기 중에서-

유항검과 이순이 일가에 대한 기록은 2년 전에 연재한 내용을, 다섯분의 영광스러운 시복에 즈음하여 재조명한 것이다. 이들은 박해자들에 의해 지상에서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지만, 온 가족이 온전히

영원한 천상가정에 오른 것이다. 원래 왕족의 후손이던 이순이 집안에서는 지체가 떨어지는 시골 양반과 혼사를 맺음에 완강히 반대했지만, 어머니 권씨는 이들을 설득하여 딸이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 또한 호남의 갑부 시부모도 아들 부부의 동정의 삶을 허락해 주었다.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인도로 성사된 것이다. 모친 권씨는 권일신의 누이로 권상문과 권대례사 조숙 부부의 고모이며, 남편과 세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한 신앙의 어머니시다. 이들 중에 남편 이윤하를 제외한 조카3위(조숙 포함), 자녀3위 여섯분이 시복 예정이다.

이곳은 호남지방 복음화의 요람지로 지금은 그 자리에 전교당이 세워졌고, 그분들이 마셨던 샘 ‘정지샘’이 그대로 남아 순례자들을 한없는 기도에 잠기게 한다.

이제까지 전주에서 순교하시고 시복 예정인 열분에 대해 기록했다. 신유박해(1801년)의 순교자 유항검 일가 5위와 기해박해(1839년)의 순교자 홍재영, 오종례, 심조이 이봉금, 김조이 다섯 분이다. 전주의 순교자부터 정리하다 보니 연재 순서가 바뀌었다.

다음은 제주도의 사도 하느님의 종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를 기록할 예정이다.

(기고 : 이진원 미카엘)

* 정정: 지난 호에 실린 유중성은 유항검의 아들이 아닌 조카였다.

**SDT**
시드니일일관광

시드니 일일관광
포트 스테판, 블루마운틴,
시드니 시내관광
멜번, 케언즈, 뉴질랜드 남섬 등



8214 8822 G Floor 302 Pitt St, Sydney
0411 457 222 김예환 스테파노

**다이아몬드생수**

“맹그로브 마운틴의
천연 심층 암반수”
물은 깨끗이 맛있습니다!

**15리터
\$9.90**
Cooler
대여해 드립니다.

0416 100 499 / 0404 044 117

**WISDOM EDUCATION**
OC, SELECTIVE & HSC SPECIALISTS

✓ Primary School subjects,
✓ High School subjects &
✓ HSC subjects

**TERM2 에 등록하시면 매학기마다
20% 할인**



Tel: (02) 8710 3466 | 3 John St, LIDCOMBE
www.WisdomEducation.com.au
*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라스마니아로 오세요

공항 픽업 부터 관광 숙박 식사 까지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단체, 피정환형

0400 876 663
03 6273 1162 홍 순기(다니엘)

살아 숨쉬는 공동체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
요한 20,19-23

질문

19.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모두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21.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절망 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평화를 나누어 봅시다.

22.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 영적 무기력함이 주님의 숨결로 회복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3.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을 신앙으로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묵상

오늘 복음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이미 세례성사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생활”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제직을 수행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론과 고해 성사는 성령을 체험하는 특별한 은총의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저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살아 숨 쉬며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제 스스로 자주 느낍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었던 저는 강론을 잘 하시는 신부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사제가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강론을 하고 싶습니다. 소박한 꿈이 현실로 다

가온 새 사제 때는 일주일을 준비해도 주일 강론이 벅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강론 준비를 하다보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제게는 강론이 은총의 시간입니다.

한편, 저는 고해실에서 교우들의 죄 고백을 들으며 자주 성령 청원 기도를 바칩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화가 무엇인지를 일깨워달라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고해소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변화되는 교우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처럼, 고해성사의 풍요로움은 고해자의 마음과 고해 사제의 마음이 맞닿을 때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저와 같은 체험을 하시나요?

6월 15일 삼위일체 대축일
요한 3,16-18

질문

16.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하느님께 바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 나는 지금 누구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나를 세상에 파견하시는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구현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묵상

삼위일체 대축일인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와 나누신 대화의 일부를 전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활동하셨습니다. 태초에 이루어진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구약의 하느님은 인간이 대면할 수 없는 절대자, 혹은 초월자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느님은 인간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원자이신 성자 하느님께서 활동하셨습니다. 참 하느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할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신약의 하느님은 인간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시대에는 보호자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령강림으로 태동한 교회가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로

살아 움직이도록 이끌어주십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聖殿)이 되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돕보아 주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해 오셨으며,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친교와 일치성을 통해 드러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6월 22일 그리스도 성체
성령 대축일 요한 6,51-58

질문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인 성체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 모시는지 나누어 봅시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리를 설명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성체를 모시면서 얻은 기쁨을 나누어 봅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에핑건강식품
각종 꿀, 각종 건강식품
각종 화장품, 양모 제품 및 호주 토산품
9876 8282(빨리빨리)/9876 6071
0404 070 338(24시간)
27 Rawson St. Epping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머리방
에터미 회원님들께는 특별할인을 해드립니다
<꼭 예약바랍니다>
Tel: 8084 8417 / Mob: 0430 477 723
12 Edgar St., Eastwood

신개념 운동 재활병원
KIM'S KINESIOLOGY CLINIC
KIM'S HEALTHCARE CLINIC
• 치료 마사지 / 운동 물리치료
• 체중 관리 / 다이어트
• 소그룹 운동 / 퍼스널 트레이닝
• 뷰티 트리트먼트
www.kimclinic.com.au
스트라스필드 9764 1088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4층
이스트우드 9858 2200 Level 2, 29 Rowe St. Eastwood

리드컴안경원
다양한 제품
친절한 서비스
최신 신상품
최신식 설비에 의한 정밀 시력검사
Medicare 및 개인보험 이용가능
9643 1000
11 Joseph St, Lidcombe NSW 2135
(중앙식품 맞은편, 해피마트 옆)

의전 홈플러스
의류, 주류, 토산품, 건강식품, 식품, 생활용품
블라인드 & 커튼 사업부 : 블라인드, 커튼, 벽지
무료견적, 직접생산, 빠른시공
Tel ; 9742 1188 / Mob. 0400 11 8282
49 - 51 Punchbowl Road, Belfield

김상진 회계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 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바른길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법률사무소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군관대 법대졸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교통사고, 음주운전, 민·형사소송, 부동산, 비즈니스매매, 각종계약서
Suite 7 Level 1 58 The Boulevard Strathfield
T 02 9715 1771, F 02 9715 2771
M 0433 573 213



주님 안에 사랑하는 시드니 후원 회원님들께

아름다운 성모님의 성월입니다. 저는 파푸아 수도회 모레스비에 위치한 까리파스 초등학교와 빈민가에 위치한 바다바다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까리파스 수녀회 소속 박희정 콜만 수녀입니다. 작년 10월에 시드니 한인성당 교우 분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돌아온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드니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이곳은 시드니처럼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나라 나름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기에 여기 저기서 말라리아와 결핵으로 앓아눕는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말라리아나 감기에 걸렸지만 그냥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지요. 부모님들은 도박과 마약에 정신이 팔려, 또는 장사를 하느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긴장하고 아이들을 살핍니다. 웬지 힘이 없이 앓아 있는 아이들의 경우



체온을 재보면 38도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상황은 어른인 선생님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바다바다 마을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어른들 틈에 끼여 빙고게임이나 도박을 하고 있는 Primary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 가지 않았냐고 물으면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파서 집에 가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푸아는 여전히 문

맹물이 너무 높고, 그런 공립학교조차 자리가 없어 9살 10살이 되어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배가 고프은 아이들에게 점심이라도 주고, 제 이름 석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시작한 초등학교인데, 사실 지난 달에는 수입(후원금)이 전혀 없고, 지불해야 할 선생님들과 직원들의 월급 총액이 9천 키나(4천불)에 다다라서 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장학금 소식은 더더욱 성모님의 선물처럼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시드니 한인 본당의 교우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학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학생 비율이 80% 이상 차지하는 저희 학교 학생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매월 첫 금요일과 첫 토요일에는

돈 보스코 대학교 저희 까리파스 학생들이 함께하는 살레시오 미사에서 후원회원님들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후원 회원님들을 위한 저희의 작은 기도를 보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본당 한글학교 어린이 가을 운동회

- 일시: 2014. 6. 21(토) 오전 9:30-12:30
- 장소: Hume Park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옆 공원)

본당 한글학교 어린이 가을 운동회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 핸드북 - 성가대원이 꼭 알아야 할 '전례'

존 하이다 다이아나 콜백 지음 / 이상철 신부 옮김 / 가톨릭출판사



성가대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께 봉헌하는 거룩한 성제에 참여하는 '전례 봉사자'다. 하지만 성가대원들을 대상으로 전례 봉사자로서의 영성과 정체성을 교육할 만한 교재는 마땅찮은 것이 사실이다.

사제이자 작곡가인 이상철 신부(서울 마장동본당 주임)가 번역한 「성

가대원 핸드북」에는 성가대원들이 꼭 알아야 할 전례에 관한 내용들이 알차게 담겨 있다.

가톨릭 합창단에서 37년 간 성음악 담당자였던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전례 용어나 개념들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돼 있다. 더불어 책 마지막 부분에는 성음악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축복 기도문'도 실

어, 신자들이 성가대원의 임무와 공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철 신부는 "이 작은 책자를 통해 일선 본당의 성가대원들이 미사를 포함한 전례 중에 자신들이 맡은 역할과 직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노래를 하는 이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 목, 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bush
Website 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공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HB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벤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한진IT
실용이 있는곳에 세계가 몰려온다!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키폰,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

TRUE ROSES
각종 화환 / 웨딩전문
Shop 19/222-230 Church St. Paramatta
9633 1616
0423 832 854